책을 펴내며 | 4

제 1부 선택하라! 새로운 대한민국을

박근혜 대통령 자격 있나?

역사의 수레바퀴, 거꾸로 갈까? | 15 단지 '희망사항' 일 뿐| 17 불통의 리더십 '박근혜' | 19 '박정희 향수' 의존, 유훈통치 펼치려 해 | 23 아무에게도 힘 실어주지 않아 | 25 MB 반대 투표한 적 거의 없다 | 27 비지지자들이 더 많다 | 29 보수 분열의 책임 어찌할 것인가 | 33

대세론은 없다 야당의 대항마 '김문수'

새누리당 유력한 대권주자 '김문수' | 43 국회의원은 '국민의 머슴' | 47 '김결식' 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 | 50 공직자의 기본은 '청렴' | 52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|54 복지온도는 36.5도| 57 국민여러분 어디로 모실까요? | 60 소통의 달인, 서민의 아픔에 애통해하다 | 63 김문수는 변절자인가? | 65 김문수와 119 | 69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 | 73 새누리당 '트통령' | 77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다… 대선출마 | 79 서민 김문수 VS 얼음공주 박근혜 | 81

손학규, 그의 빛과 그림자

친노세력 아우르고 넘어서야 | 87 뿌리 깊지 않은 나무 '손학규' | 90 국민 속으로 '민심대장정' | 92 민생 챙기는 대통령 나와야 | 94 시대정신은 '통합' 박근혜로는 안 돼 | 96

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 위해… 이재오

대선고지 어떻게 넘을 것인가 | 101 민주화운동… 현실정치에 발을 담그다 | 104 이재오가 '빨갱이' 라고? | 106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 | 108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| 111

폐족의 부활, '문재인' 성공할까?

'탈노무현' 구체적인 성과 없어 | 115 '낙동강 벨트' 뜻대로 되지 않아 | 117
노무현을 넘어 문재인으로 | 119 단합이냐 담합이냐? | 121 참여정부 시절 '왕수석' | 123

재벌가의 황태자 '정몽준'

7선의 최다선 의원 | 129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 지지 철회 | 131
버스요금 70원 발언 논란 | 132 스포츠 할 때는 '매서운 호랑이' | 133 세상 보는 눈 열어준 '유학시절' | 135 2002 월드컵 유치… 글로벌 리더 | 138

이중적인 행보 보이는 '안철수'

신선함, 정치인의 때가 묻지 않았다? | 143 대통령직 수행능력 알 수 없어 | 146 언론이 힘을 합쳐 '아바타' 키우고 있지 않나 | 149 빌게이츠를 왜 만났을까? | 151 대선후보 자리 비켜 주었으면 | 153

자기 부정의 극치… '정동영'

2007년 경선 당시 '명부떼기' 등 의혹 | 157 노인 · 노동자 폄하 발언 논란 | 159 공천 탈락 반발, 민주당 옷을 벗다 | 161 전두환의 '해외 순방' 찬양 | 163

리틀 '노무현' 에서 한국의 '룰라' 로, 김두관

친노 핵심 문재인과 차별화시도 | 169 스펙 약하고, 중앙정치 경험 적어 | 171
한국의 '룰라' 가 되고 싶다 | 174 마을 이장에서 장관까지 | 177

제 2부 실패한 대통령… 불행한 국민들

촛불시위와 명박산성 | 183 부엉이 바위에 올라간 대통령 | 185 이별통보… 대통령은 탈당하라 | 189 흑룡이 될 수 없는 슬픈 현실 '양극화' | 192 미래세대의 분노, 해결책은 없나? | 196 복지는 거부할 수 없는 '시대정신' | 199 햇볕 사라진 한반도 전쟁날까? | 204